

리스크관리 체계

삼성증권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리스크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의사결정 단계별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에 적시, 적합 대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위험관리집행위원회는 영업 부문별 리스크관리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하위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상위 위원회에 보고하고 하위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 이상의 승인 필요 시 상위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리스크 판단 및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리스크관리담당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지정됩니다. 즉 거래담당부서장 및 담당 임원은 리스크관리 부서장 및 담당 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관리 조직도



위험비용제도

삼성증권은 RAPM*의 일환으로 특성화된 위험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 위험비용을 산출하여 해당 비용을 경영진 및 사업부문(IB, Sales&Trading, 채널영업 등) 직원의 성과급 금액에 반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리와 재무적 성과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VAR 수치 (단위 : 십 억원)

구분	FY 2020				FY 2019
	일평균	최저	최고	기말	기말
총 VaR	15.6	5.2	54.2	14.1	11.4
주식	5.3	0.7	43.2	3.6	4.6
금리	13.3	5.8	17.7	11.9	10
FX	0.1	0	0.2	0.2	0
분산효과	-3.0	-1.2	-6.9	-1.5	-3.3

순자본비율 (단위 : %, %p, 십억 원)

구분	FY 2020	FY 2019	전년대비
영업용순자본	4,324	3,466	+858
위험액	2,353	2,327	+26
필요유지자기자본	130	130	0
순자본비율	1,516%	876%	+640%p

*RAPM(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 리스크 감수에 대한 합당한 수익 창출의 평가지표

리스크관리 심사 강화

리스크관리 · 심사 체계



리스크관리부서의 역할과 책임

리스크관리팀	리스크심사팀
- 전사 위험한도 부여 및 모니터링 - 위험관리 회의체 운영 - 대외보고(순자본비율 등)	- 기업, 부동산, 대체자산 심사 - 자체 신용등급 및 거래 상대방 한도 관리 - 보유자산 사후관리

심사 기능 강화 배경

국내 금융시장은 기존의 국내 주식, 채권 위주의 투자 기조를 벗어나 국내외 기업대출, 부동산 금융, 인프라 자산 등 대체투자 자산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심사역량을 강화 중입니다. 심사인력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회사의 투자 및 상품 공급을 위한 대상 자산의 리스크와 수익성 평가를 수행합니다.

심사 기능 강화 효과

- 부동산, 인프라 등 자산별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신규 자산 투자 대응 강화
- 자산별 심사 전문성 강화 및 심사 방법론 정교화
- 전문 영역별 상호 교차 리뷰를 통한 리스크 검토 역량 개선